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美 고용지표 발표 관망세로 올해 최저 거래량 기록하며 하락
------	----------------------------------

- 전일 달러/원 환율은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며 전일대비 1.3원 하락한 1,058.3원으로 출발했다. 장 초반 달러화는 수출업체의 네고물량 유입에도 수입업체의 결제수요로 1,050원대 후반을 지지했다. 그러나 점차 네고물량에 밀리면서 하락 압력을 받았다.
- 전일 현물환 거래는 미국 비농업부문 고용지표 발표를 앞둔 탓에 장중 내내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올해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1,057.4원에 저점을, 1,059.40원에 고점을 기록했고 결국 전일대비 1.6원 하락한 1,05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058.30	1059.40	1057.40	1058.00	1058.2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41.89	1042.31	1027.09	1028.55	
금일 전망	美 고용지표 호조로 인한 테이퍼링 우려 완화로 하락 전망				

- 6일 발표된 미국 11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연내 양적완화 규모 축소와 관련한 우려가 완화된 영향으로 금일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0원 내린 1,053.0원으로 출발하였다. 연내 테이퍼링에 관한 우려감이 없어지면서 달러화는 강한 하락 압력을 받아 지난 10월 24일의 장중 연저점인 1,054.3원을 31거래일만에 하향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장중 하락폭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다만 연저점을 돌파한 1,050원대 초반에서는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짙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저점 결제수요 유입도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048.00 ~ 1060.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813.49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4.85원하락 ■ 美 다우지수 : 16020.2, +198.69p(+1.26%)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46.625 억달러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